

 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2019년 9월 1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식량정책과 과장 윤원섭(044-201-1811), 서기관 김정락(1820) 식량산업과 과장 송지숙(044-201-1831), 사무관 이수일(1832) / 제공일: 9월 11일(총 2매)		

농식품부, 유관기관과 벼 도복 피해농가 일손돕기 추진
- 명절 연휴 전 조속한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-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는 제13호 태풍 '링링'으로 벼 쓰러짐(도복) 피해(12,662ha, 9.9일 22시 기준)가 많이 발생하여 유관 기관과 함께 벼 도복 피해 농가 일손돕기를 추진하였다.

* 태풍 피해현황(9.9, 기준) : 농작물 21,735ha(벼 도복 12,662, 사과 5,131, 밭작물 침수 1,745 등)

- 농식품부, 농진청, 농어촌공사 임직원 등 400여명*은 명절 연휴 전 주요 피해 지역**인 전남, 충남 등의 고령농, 소농 피해농가를 방문하여 쓰러진 벼 세우기, 태풍 피해 잔여물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.

* 일손돕기 일정 : (9.9) 전남, (9.10) 충남, 전남, 전북, (9.11) 충남, 전남

** 지역별 벼 도복 피해현황 : 전남 4,677ha, 충남 2,345, 전북 1,458, 경기 1,364 등

- 이번 일손돕기는 쓰러진 벼를 방치할 경우, 수발아*, 병충해 위험에 노출되어 품질 저하, 생산량 감소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추진하였다.

* 수발아 : 벼 이삭이 도복이나 강우로 젖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삭에서 싹이 트는 것을 의미하며, 수발아한 낱알은 식용, 종자용 등으로 사용 곤란

- 또한 농어촌공사를 통해 태풍으로 막혀있는 논 배수로, 배수장 등에 대한 긴급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,

- 지자체(농업기술센터)를 통해 수확 시기가 다가온 피해 벼는 조속히 수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, 태풍 이후에도 국지적으로 강우가 발생하고 있어 병해충 방제 등 기술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.

- 한편, 벼 이외에 콩 도복·침수 피해 지역(960ha)에 대해서는 작물의 조기 회복을 위해 병해충 방제 시 영양제 등을 혼합하여 살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.

-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이 강풍을 동반하여 도복 피해 외에도 백수, 흑수*, 병충해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추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벼 생육상태를 예의주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백수·흑수 : 침수, 강풍 등으로 생육에 장애가 발생하여 낱알이 하얗게 변하거나 까맣게 변하여 쪽정이가 되는 현상